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금년 초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교육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수평적 호칭제가 눈길을 끌었다.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호칭을 ‘ 쌤 ’ 이 나 ‘ 님 ’ 으로 통일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 교장 선생님 ’ 을 ‘ 교장 쌤 ’ 또는 ‘ 교장 님 ’ 으로, ‘ 담임 선생님 ’ 을 ‘ 담임 쌤 ’ 또는 ‘ 담임 님 ’ 으로 불러야 하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다.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김 선생님, 이 선생님도 ‘ 김 쌤 ’ 또는 ‘ 김 님 ’, ‘ 이 쌤 ’ 또는 ‘ 이 님 ’ 으로 불러야 하는가? 이 방안에 따르면 학생들도 국어 선생님을 ‘ 국어 쌤 ’ 으로 수학 선생님을 ‘ 수학 쌤 ’ 으로 부르게 된다.

그러나 이 수평적 호칭제가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 교육청은 한발 물러섰다. 특히 학생들이 선생님을 ‘ 쌤 ’ 으로 부르는 것

‘선생님’이나 ‘쌤’이나

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이 호칭은 사제 간이 아니라 교직원 상호 간의 호칭에만 적용된다고 물러선 것이다. 후에는 이마저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발 더 물러섰다. 이 문제에 대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교권 추락이 크게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 개선 정신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호칭 문제만 제기되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여전히 ‘수평적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나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지금 초·중등학교에서 조직의 수평화가 그렇게 절실하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절대로 수평화되어서는 안 되고, 교사 상호 간의 관계도 꼭 개선해야 할 만큼 수직적이라 보기 어렵다. 기업체에서의 부장과 평사원의 관계처럼 학교에서의 부장과 평교사의 관계는 그렇게 수직적이지 않은 것이다. 설령 다소 수직적인 면이 있더라도 ‘ 쌤 ’ 으로 부름으로써 그 관계가 수평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는 호칭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선생’ (先生)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는 최고의 존칭이었다. 아무에게나 선생이란 호칭을 붙일 수 없고 예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지금은 ‘선생’이란 호칭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으나,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에게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당연히 선생이라 불러야 옳다고 생각한다.

‘ 쌤 ’은 일종의 비속어(卑俗語)가 아닌가? 더구나 조 교육감의 말처럼 ‘교권 추락이 크게 우려되는 현실’에서는 다더욱 ‘ 쌤 ’과 같이 상스러운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교권의 추락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점에서 지금 하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 혁신’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 문화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 ‘선생님’이란 호칭 때문에 교육의 질이 훼손되는지, 호칭을 ‘ 쌤 ’으로 바꿈으로써 교육의 질이 개선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선생님’ 호칭과 관련하여 대학 구성원 간의 호칭 문제도 한번 짚어 본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교수를 ‘교수님’으로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호칭이 못마땅하다. ‘교수’는 존칭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공무원’과 같은 직업 명칭이다. ‘교수’에 ‘님’자를 붙여 ‘교수님’이라 해도 존칭이 되지 못한다. 이젠 마치 ‘의사님’, ‘공무원님’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재직할 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도록 타일렀다. “나를 조금이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생님으로 불러라. 교수님이라 부르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다보지도 않을 것이다”라 말해 주었다.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존경받고 싶다고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나를 존경해 달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다만 ‘교수님’을 존칭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님이란 명칭은 어딘지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선생님이란 명칭은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선생님! 이 얼마나 다정한 말인가. 이젠 나만의 개인적인 기호일까?

기고

광주전남연구원의 혁신과 성과 창출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새해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을 원동력으로 성과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양 시도의 공동 출연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도 이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올해로 통합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나름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며 어렵사리 설립된 연구원은 통합 취지에 걸맞게 나누에 있는 공동 혁신도시에 동지를 뿔었다. 잘 알다시피 빛가람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든 걸작품으로 성장세가 제일 두드러지면서 혁신도시 시즌 2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이 시급하였다. 또한 대도시와 농수산 해양의 바탕을 갖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기에 지향하는 발전 전략이 달랐다. 여기에 각자 도생하자는 생각에서 상대적으로 동반성장을 간과한 채 살아왔기에 새로 만들어진 통합 연구원은 추구하는 미션부터 달라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리적인 통합은 가까스로 이루어졌지만 돌이 하나 되는 화학적 결합은 더 많은 시간과 땀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연구원 규모가 갑절로 커지고 연구원에 거는 높아진 기대감에 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다. 통합 전의 연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행기면 되지만, 이제는 두 지자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상생과제를 만들고 해결해야 하는 난제를 깨닫게 되는 바람에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 뿌리 공동체인 남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 우리 구성원들은 소명 의식과 보람을 갖고 지금까지 매진해 오고 있다.

필자는 일생을 경영학 공부를 해오면

서 터득한 지혜가 있다. 외부 고객이 까다로울수록 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소나나 파나소나익이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것도 일본 소비자들의 꼼꼼하고 철저한 지적 덕분이라고 한다. 자동차 생산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 합류한 것도 차량 관리에 쏟고 닦는 여념이 없는 한국인들의 습성이 주효했다고 한다. 어느 미국 기자가 쓴 기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도 출렁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불평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최근 통합 연구원의 지난 3년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많은 대안까지 제시해 준 외부 고객인 언론 기관의 노력에 우선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간과했던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해 지나쳤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준 정성 또한 고맙다.

꼭 연구원을 비롯 시도 연구원까지 전국에 많은 싱크 탱크가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 연구원은 통합했어도 중남

연구원 하나 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다. 인력과 재정적 취약한 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연구진들을 보면서 수장으로서 가슴이 저며 오곤 한다. 국립대학에서 평생을 보냈던 필자로서는 대학과 연구원의 연구 환경에 큰 격차를 실감하면서 보다 양질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달 하순 우리 전 가족들은 여수 경도에서 무박 2일로 혁신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우리 전 구성원들은 당찬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사·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합당한 해법을 강구하면서 현장감 있고 실효력 있는 연구로 환영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자고 말이다.

이제는 광주와 전남의 민강한 현안이 라도 상생을 위해서라면 기감 없는 목소리를 내면서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갈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광주전남연구원은 뼈를 깎는 각고면려의 노력, 가족을 도려 내는 혁신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남도의 싱크 탱크로 거듭나고자 한다. 우리 연구원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껴 주시길 바란다.

매 순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6년 전 가족과 함께 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토요일 아침이 생각난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던 어머니의 낮고 진속한 목소리, 크리스마스 장식에 화려한 거실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보냈던 시간, 나이가 많으신데도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따뜻함을 떠올리니 지금도 눈물이 고인다.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몸 상한 곳 없이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대학에 들어와 비로소 알게 된 ‘진정한 행복’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훗날 행복한 우주비행사가 될 것을 다짐해본다.

社說

권영진 대구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하여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원 씨 등과 손잡고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 운운하며 광주민 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능욕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센 후폭풍으로 한때 상승하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당 지도부는 별로 반성할 뜻이 없는 것 같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 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발언했다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란 말인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당 아닌가.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5·18 망언’ 파문과 관련 대신 사과하고 사과문 전문을 공개했다. 권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를 드렸다”며 “광주시민에 대한 저의 사과와 위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제 양심에서 우리나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저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정신을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대구 시민들 다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언론사 여론 조사에서 대구 경북 시민들의 57.6%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덧붙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권 시장 같은 양심적인 인사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용섭 시장이 답신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이런 사과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앓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권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김진태 의원 등의 망언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5·18 진상 조사위원 또한 더 이상 뽀니를 부리지 말고 새롭게 추진하거나 추진권을 반환하기 바란다.

리모델링 시작 전일빌딩 역사성 잘 살려야

5·18 민주화운동의 생생한 현장이자 ‘호남 언론 1번지’였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이 역사·문화 관광 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어제 ‘전일빌딩 복합 문화 센터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5·18 당시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전일빌딩은 옛 전남 도청 및 본수대와 함께 치열한 항쟁의 현장이자 공수부대의 만행 등 국가 폭력을 낱알이 지켜본 목격자이기도 했다. 특히 2016년 건물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 100여 개는 그동안 의혹만으로 제기됐던 ‘헬기기총 사격’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다.

또한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줄임말인 ‘전일’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통신사 등이

함께 입주했던 호남 언론의 산실이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 지난 2013년부터 리모델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시는 앞으로 국비와 시비 484억 원을 들여 총탄 흔적이 발견된 9∼10층에 5·18 전시관과 자료실 등을 배치하고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 참여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1층에는 빌딩의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역사관을 만들어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일빌딩은 그 자체로 보존 가치가 큰 만큼 향후 공사 과정에서도 그 역사성을 잘 살려야 하겠다. 무엇보다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5·18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헬기 사격 흔적 등을 토대로 완전한 진상 규명의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물뽕’ (GHB; gamma hydroxy butyrate)이 또다시 화제다. 물뽕은 2000년대 들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꽤 알려진 마약이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 폭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를 ‘빅뀌’의 승리가 사내이사여서 더욱 유명했던 이 클럽에서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24일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클럽 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당시 클럽 내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내에 몸이 이완되고 취한 듯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더욱 커져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고 의식 불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 복용 후 3~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다량 복용 시 환각 증세와 강한 흥분 작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성 폭력범들이 주로 이용해 ‘데이트 시강간할 때 쓰는 약’ (date rape drug)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뽕은 2001년 3월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폭행을 당했고 출동 경찰관들이 장 씨가 아니라 피해자인 자신을 입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직후 버닝썬 내에서 물뽕이 유통되고 이 마약을 이용해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했다는 클럽 전 직원들의 주장이나 오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했다. 물뽕은 무색무취의 마약이다. 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액체 상태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엑스터시아바 등과 함께 신종 마약으로 분류돼 검정경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물뽕을 물에 타서 마시면 10~15분 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국내선		대외 FAX 222-4918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FAX 222-8005)	(FAX 222-0195)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본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청춘 특·특

진정한 행복의 깨달음



모함메드 하루나 함자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2학년
나이지리아 유학생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늘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 말씀의 영향을 받아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좇으며 성장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부터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지만 늘 아버지의 말씀을 유념하며 살았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보고 무조건 달려갔고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

했다.

그런 내게 가치 있는 일들은 시험 성적을 잘 받아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것,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 것, 여러 대회에 입상하는 것이었다.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했고, 더 노력하리라 다짐했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에 와서도 행복을 주는 가치들을 찾는 신념은 바뀌지 않았다. 밤낮 없이 공부하여 성적 장학금을 받고, 학생 대표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나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닥쳐왔다. 2018년 여름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던 중 나는 갑작스런 과로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됐다.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급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게 됐다.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내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 자신이 행복이라는 목적에 사로잡혀 그것을 좇는 데만 급급했었다는 것을 말이다.

어릴 적에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시는 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행복이다”라고 대답해주셨다.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 단순히 행복을 찾아 나서기 바빴지만 사실 행복이 내 눈앞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